

【일반논문】

## 북한 권력엘리트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 개발

- 장성택 숙청 이후 현지도도 수행 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인수 (육군사관학교)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권력엘리트 개인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북한 정권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김정은의 현지도도 동향(2012-2015)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북한 권력엘리트는 장성택 처형 이전에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하는 인원과 장성택 처형 이후에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본고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전과 비교하여 장성택 처형 이후에 현지도도 수행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인원은 김정은과 친화성이 높다고 보고, 현지도도 수행 빈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토대로 북한의 권력엘리트를 분석해본 결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친화성이 매우 크거나 낮은 인원, 즉 장성택 처형 이후 현지도도 수행 빈도가 크게 변화된 인원이 많지 않았다. 이는 장성택 처형이 북한 권력층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매우 높은 인원과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매우 낮은 인원의 직책이 동일했다. 이는 장성택 처형 이전과 이후에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하는 인원의 직책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다른 인원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군 중심의 북한 권력구조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주제어: 김정은, 장성택, 현지도도, 친화성 지수.

---

\* 본고에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고의 주요 분석 결과는 2015년 12월 15일 국방정책학회 연말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I. 문제 제기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당시 북한 정권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렸다. 한 편에서는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장성택·김경희 등 친·인척과 군부 실세의 도움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장성택 처형의 여파로 최대 3만 명 이상이 숙청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장성택 세력이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 것으로 예측했다.<sup>1)</sup>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2015년 북한 전문가들은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 권력층을 동요시킬만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전의 분석과 달리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 권력층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 정권에 대한 연구는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탈북자 또는 북한 내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연구자가 확보한 정보가 왜 북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지에 대한 논의, 즉 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관찰 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표를 지속적

1) 『중앙일보』, 2013년 12월 7일.

2)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

으로 관찰한 후 특정 시점을 전·후로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특정 지표의 개발보다는 주요 인물의 신상 변동 또는 사건의 전개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sup>3)</sup>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현지도도를 측정 지표로 하여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현지도도는 “군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학교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행하는 특유의 정책지도 활동으로서의 통치방식”을 의미한다.<sup>4)</sup>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도에 대한 분석은 몇 가지 한계와 장점을 동시에 갖는다. 먼저 수령제 하의 북한에서는 누구도 최고지도자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최고지도자가 현지도도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면 현지도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원인은 최고지도자의 의도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도도 분석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도 동향은 일일 단위로 수집·공개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분석자료 확보가 용이하다. 둘째, 현지도도 동향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기 때문에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sup>5)</sup>

3) 양무진,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연구학회보』, 18권 1호 (2014), pp. 29-54;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pp. 1-27;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 변동,”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2014), pp. 66-85.

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koreanChrctr=&dicaryId=218>> (검색일: 2016년 4월 7일).

5) Insoo Kim and Min-Yong Lee, “Predictors of Kim Jong-Il's On-the-spot Guidance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North Korea Review*, Vol. 8, No. 1 (Spring 2012),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정은의 현지도 동향을 토대로 ‘김정은 친화성’이라는 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 권력엘리트에 발생한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인원에 대한 분석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둘째, 김정은 친화성 지수(affinity index)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북한 권력엘리트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중심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발생한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향후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II.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와 북한정세 분석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김일성의 현지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고, 연구 주제 역시 북한경제와 현지도의 관계로 제한되었다.<sup>6)</sup> 이에 따라 김정일의 현지도에 대한 연구도 초기에는 북한경제와 현지도의 관계에 집중되었다.<sup>7)</sup> 예를 들어 박영민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pp. 93~104.

6) 류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 199~229; 이기청, “계획경제 실패와 현지도,” 『농민문화』 제111호 (1978), pp. 54~60.

7)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5년간의 김정일 현지도를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1999), pp. 30~36;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 분

이후 김정일의 현지도 장소 및 빈도가 북한의 경제난 극복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sup>8)</sup> 그러나 1998년 이후 김정일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김정일의 현지도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정일이 현지도 수행 인원들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도는 북한의 권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현지도 장소 및 수행 인원의 빈도를 분석하여 김정일 정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sup>9)</sup> 특히 현지도 장소 및 수행 인원 에 대한 분석은 북한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측근 세력을 식별하기 위해 언론 및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동어반복의 오류’(tautology)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군 관련 현지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군의 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의 위상이 강화된 증거로 김정일의 군 부대 현지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sup>10)</sup> 이와 같은 논리적 오류에 주목한 김인수와 이민룡은 김정일의 현지도 장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외적 위협, 군부 통제, 사

석,”『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0호 (2001.10), p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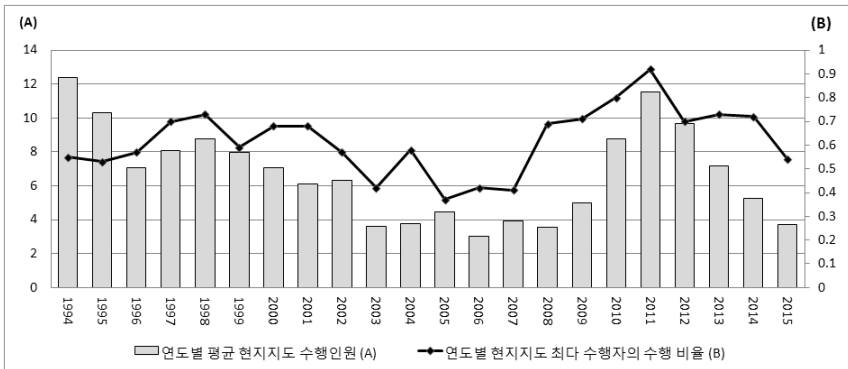
8) 박영민,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 현지도 패턴 분석: 2000년-2009년까지,” 『동북아연구』, 제25권 1호 (2010), pp. 77~96.

9) 이교덕,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서석민, “선군정치 시대의 당-군 관계 연구: 핵심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제15집 1호 (2007년 2월), pp. 216~243.

10) ‘동어반복의 오류’의 또 다른 사례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경제·행정 분야 현지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증거로 경제·행정 분야 현지도 증가를 제시하는 것이 있다.

회 통제, 경제 개혁 등 북한의 국내외 상황과 관련된 변수로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도 빈도를 예측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sup>11)</sup> 이들의 연구는 현지도도 장소의 변화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자의적 의사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상황을 투영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림 1〉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 수행 인원(1994-2015)



구분	현지도도	수행인원	평균인원	최다수행자		
				성명	수행빈도	수행비율
1994	11	136	12.36	김국태	6	55%
1995	36	370	10.28	최 광	19	53%
1996	54	382	7.07	박재경	31	57%
1997	56	452	8.07	김영춘	39	70%
1998	70	614	8.77	현철해	51	73%
1999	66	527	7.98	현철해	44	59%
2000	75	529	7.05	김국태	39	68%
2001	90	551	6.12	현철해	51	68%
2002	107	675	6.31	김국태	61	57%
2003	85	308	3.62	현철해	36	42%

11) Insoo Kim and Min-Yong Lee, "Predictors of Kim Jong-Il's On-the-spot Guidance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pp. 93-104.

2004	95	356	3.75	현철해	55	58%
2005	124	552	4.45	박재경	46	37%
2006	101	307	3.04	박재경	42	42%
2007	78	307	3.94	현철해	32	41%
2008	75	266	3.55	현철해	52	69%
2009	152	757	4.98	김기남	109	71%
2010	147	1,293	8.79	장성택	118	80%
2011	127	1,467	11.55	장성택	118	92%
2012	151	1,463	9.69	장성택	106	70%
2013	212	1,519	7.17	최룡해	154	73%
2014	172	903	5.25	황병서	124	72%
2015	153	589	3.84	황병서	80	53%

참고: <그림 1>의 자료를 하단 표에 제시함.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2017년 4월 7일 검색).

현지도도 수행 인원 역시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그림 1>은 연도별 평균 현지도도 수행 인원과 연도별 현지도도 최다 수행자의 수행 비율을 보여준다. 첫째, 연도별 평균 현지도도 수행 인원은 현지도도 1회당 평균 수행 인원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정일의 현지도도 수행 인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표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의 경우도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2012년 현지도도 수행 인원이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연도별 현지도도 최다 수행자의 수행 비율은 매년 현지도도를 가장 많이 수행한 인원이 그 해에 실시된 현지도도 중 몇 건의 현지도도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인물의 필요성은 정권이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도도 최다 수행자의 수행 비율은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정권을 창출한 1998년 전후와 김정은이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2010년 전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김인수와 권훈은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군부대 현지도도와 행정·경제 분야 현지도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지도도 연결망에서 당·정·군 권력엘리트들이 현지도도를 함께 수행할 가능성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sup>12)</sup> 이들은 유훈 통치기의 북한에서는 당 측근 세력이 군·정 엘리트를 대개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1998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당·군 엘리트 중심으로 군부대 현지도도 연결망이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인수와 이민룡은 선군정치 하에서 군에 대한 당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군 엘리트 중 누가 군부대 현지도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조사하였다. 이들은 군부대 현지도도를 훈련 참관, 지휘부 방문 등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와 군예술단 공연 관람 등 상징적 군부대 현지도도로 구분하고,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 수행 빈도에 대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당 관료가 김정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군 장성에 비해 1.5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13)</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도 장소와 수행 인원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좋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도도 동향을 활용해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통일부의 북한정세지수(NKSI)가 있다. 북한정세지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변화 양상을 지수로 전환하여 북한 정세를 평가

12) 김인수·권훈, “김정일의 현지도도(1994-2008년) 연결망 분석,” 『통일연구』, 제 14권 2호 (2010), pp. 5~30.

13) Insoo Kim and Min-Yong Lee, “Has the Military superseded the party under Kim Jong-il’s rul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5, No. 2 (Fall/Winter 2011), pp. 39~54.



한다. 그러나 북한정세지수는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장성택 처형과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북한의 권력구조에 미친 영향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정은의 현지도 자료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 권력엘리트에 미친 영향을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현지도도는 매해 연말 당 조직지도부에서 계획하였고,<sup>14)</sup> 김정은의 현지도도는 서기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그러나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체제 하에서는 현지도도 수행 인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현지도도 수행 인원 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권력엘리트와 김정은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지도도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현지도도를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장성택 처형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한다. 김정일은 2010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안정적인 후계체계 구축을 위해 장성택

14) 홍민, “북한의 현지도도와 경제 운영: 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 『정치비평』 9권 (2002), p. 177.

15) 『조선일보』, 2014년 12월 3일.

의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했다.<sup>16)</sup>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0년 이후 김정일 또는 장성택의 의지에 의해서 장성택의 측근들이 현지도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2013년 장성택이 처형됨에 따라 장성택 처형 이전에 현지도도에 자주 등장하던 인물들이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는 현지도도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장성택 처형 이전에 현지도도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 장성택 처형 이후 갑자기 현지도도에 등장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장성택 처형 이전과 이후의 개인별 현지도도 수행 빈도를 비교하면 김정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

둘째, 현지도도가 실시된 장소 및 목적에 따라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 상징적 군부대 현지도도, 경제 분야 현지도도, 기타 현지도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는 부대 방문, 훈련 참관, 지휘부 방문 등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현지도도를 말하고, 상징적 군부대 현지도도는 사진 촬영, 공연 관람 등 장병들의 사기 고양과 관련된 현지도도를 말한다. 경제 분야 현지도도는 기업, 상점, 농장, 발전소, 각종 건설현장 방문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현지도도를 말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현지도도는 기타 현지도도로 분류하였다. 현지도도 수행 인원은 현지도도의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sup>17)</sup> 예를 들어 군부대 현지도도 수행 인원에는 통상 북한군 총정치국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포함된다. 현지도도 수행 인원이 현지도도 목적과 장소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다면 장성택 처형과 관계없이 장성택 처형 이전에 특

16) 장용훈, “김정일 위원장, ‘장의 남자’ 전면배치…후계 준비,” 『통일한국』 제303호 (2009), pp. 29~31.

17) 김인수·권훈, “김정일의 현지도도(1994-2008년) 연결망 분석,” pp. 19~23; Insoo Kim and Min-Yong Lee, “Has the Military superseded the party under Kim Jong-il’s rule?” pp. 99~101.

정 분야의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했던 인원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해당 분야의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할 것이다.

〈표 1〉 유형별 현지도도 현황

시기	장성택 처형 이전 (2012.1.1-2013.12.12)				장성택 처형 이후 (2013.12.13-2015.12.31)				합계
	실질적 군부대 (이전)	상징적 군부대 (이전)	경제 분야 (이전)	기타 (이전)	실질적 군부대 (이후)	상징적 군부대 (이후)	경제 분야 (이후)	기타 (이후)	
현지도도	61	55	67	167	68	44	83	102	647
수행빈도	369	553	351	1,641	272	236	392	649	4,463
개인평균 수행빈도 (표준편차)	1.82 (4.01)	2.73 (5.59)	1.73 (4.42)	8.12 (15.77)	1.34 (4.87)	1.16 (3.70)	1.94 (6.61)	3.21 (7.57)	22.09 (40.37)
	14.42(26.94)				7.66(20.29)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2017년 4월 7일 검색).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8개의 유형별 현지도도 현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고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도도에 나선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647회의 현지도도에 대해 각 유형별 현지도도 수행 인원과 개인별 수행 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기간 중 총 202명이 4,463회 현지도도를 수행하였고, 개인당 평균 현지도도 수행 빈도는 22.09회로 나타났다. 현지도도 수행 빈도를 시기에 따라 구분해보았을 때, 장성택 처형 이전의 현지도도 수행 빈도는 평균 14.42회로 장성택 처형 이후의 평균 7.66회에 비해 1.9배 높았다. 현지도도의 장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성택 처형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기타 분야의 현지도도 수행 빈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8개로 구분된 현지도도 현황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전체 변수를 소수의 요인(factor)으로 집

약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연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두 가지 공통요인으로 집약되는 경우이다.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모두 낮지만,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모두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라는 세 가지 공통요인으로 집약되는 경우이다. 중학교 국어 성적과 고등학교 국어 성적은 모두 최상이고, 중학교 수학 성적과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모두 중간, 중학교 영어 성적과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모두 최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2〉 현지도 유형간 상관관계 행렬

구분	실질 (이전)	상징 (이전)	경제 (이전)	기타 (이전)	실질 (이후)	상징 (이후)	경제 (이후)	기타 (이후)
1	1							
2	0.701***	1						
3	0.699***	0.664***	1					
4	0.575***	0.918***	0.612***	1				
5	0.572***	0.313***	0.488***	0.144**	1			
6	0.489***	0.359***	0.407***	0.172**	0.853***	1		
7	0.346***	0.257***	0.493***	0.189***	0.661***	0.579***	1	
8	0.527***	0.600***	0.602***	0.489***	0.721***	0.805***	0.724***	1

\*\* p<.05; \*\*\* p<.001

앞서 제시한 설명과 같이 본고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토하였다. 첫째, 8개의 현지도 유형이 장성택의 숙청 시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공통요인, 즉 장성택 숙청 이전과 장성택 숙청

이후로 집약되는 경우이다. 이는 장성택 숙청 이전에 현지도도를 빈번하게 수행하던 인물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현지도도에서 사라지고, 장성택 숙청 이전에 현지도도에 등장하지 않던 인물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 현지도도에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 권력엘리트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8개의 현지도도 유형이 현지도도의 장소 및 목적에 따라 4개의 공통요인(실질적 군부대, 상징적 군부대, 경제 분야, 기타 현지도도)으로 집약되는 경우이다. 장성택의 숙청 이전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현지도도를 수행하던 인원들이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동일한 영역에서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권력엘리트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표 2>에 제시한 8개 유형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현지도도 장소 및 목적보다 시기에 따라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시기별·장소별 현지도도 수행 빈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분	고유값	% 누적	요인 1	요인 2	상세성
장성택 숙청 이전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	4.7776	0.5972	0.4306	0.7132	0.3059
장성택 숙청 이전 상징적 군부대 현지도도	1.6683	0.8057	0.1946	0.9407	0.0772
장성택 숙청 이전 경제 분야 현지도도	0.5629	0.8761	0.4337	0.7216	0.2913
장성택 숙청 이전 기타 현지도도	0.4901	0.9374	0.0251	0.9494	0.0979
장성택 숙청 이후 실질적 군부대 현지도도	0.2378	0.9671	0.9203	0.1427	0.1327
장성택 숙청 이후 상징적 군부대 현지도도	0.1334	0.9838	0.9002	0.1459	0.1684
장성택 숙청 이후 경제 분야 현지도도	0.0749	0.9931	0.8132	0.1273	0.3225
장성택 숙청 이후 기타 현지도도	0.0548	1.0000	0.8058	0.4389	0.1581

참고: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vari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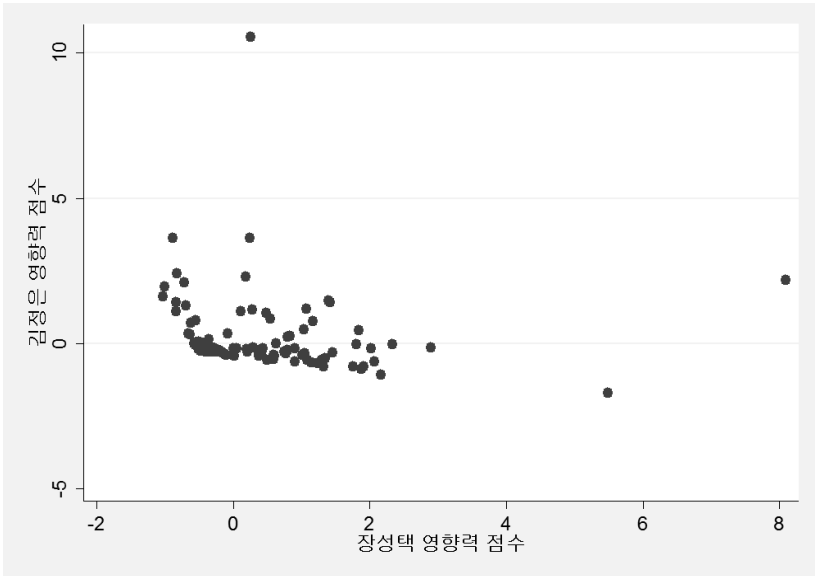
8개 유형에 대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factors)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초기 고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은 두 개였으며, 요인 1과 요인 2는 전체 분산의 80.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된 성분행렬(rotated factor loadings)과 상세성(uniqueness)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세성은 다른 변수와 공통으로 묶일 수 없는 변수의 개별적 속성을 말한다. 상세성이 높은 경우 여러 요인을 공동요인으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상세성은 0.4 이하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둘째, 현지도 장소 및 목적과 관계없이 장선택 숙청 이전에 현지도를 수행한 인원은 요인 2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장선택 숙청 이후에 현지도를 수행한 인원은 요인 1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김정은 집권기의 현지도는 장선택 처형 이전과 장선택 처형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장선택 처형 이후 장선택의 영향력이 소멸되고, 대신 김정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요인 1을 ‘김정은 영향력’, 요인 2를 ‘장선택 영향력’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본고의 분석대상인 202명 각각에 대해 개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구하였다. 여기서 요인점수란 요인 1과 요인 2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점수(장선택 영향력과 김정은 영향력)를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한 값을 말한다.

<sup>18)</sup> 통상 상세성이 0.4 보다 큰 변수는 공동요인으로 묶이기 힘들기 때문에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근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서울: 법문사, 2003), p. 579.

〈그림 2〉 장성택 영향력 점수와 김정은 영향력 점수의 산포도(Scatter Plot)



〈그림 2〉는 장성택 영향력 점수와 김정은 영향력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포도이다. 요인분석 결과로 집약된 두 요인은 상관관계가 0의 값을 갖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김정은 영향력과 장성택 영향력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장성택 영향력 점수와 김정은 영향력 점수가 모두 높은 인원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장성택 영향력 점수와 김정은 영향력 점수가 모두 낮은 인원은 다수 존재한다. 그 이유는 본고에서 1회 이상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원 202명을 모두 분석했기 때문이다. 현지도 수행 빈도가 높지 않은 인원들은 김정은 영향력과 장성택 영향력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성택 영향력 점수와 김정은 영향력 점수의 차이가 큰 인원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성택 처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원은 두 점수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인원은 두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김정은 영향력 점수에서 장성택 영향력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개인별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측정하였다(김정은 친화성 지수 = 김정은 영향력 점수 - 장성택 영향력 점수). 김정은 친화성이 높다는 것은 장성택 숙청 이전에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현지지도를 자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정은 친화성이 낮다는 것은 장성택 숙청 이전에 현지지도를 자주 수행하다가 장성택 숙청 이후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현지지도 수행 빈도를 토대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장성택의 측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현지지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인원을 식별할 수 없다. 이러한 인원들은 실제와 다르게 김정은 친화성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현지지도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의 김정은 친화성을 계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로 평가되는 서기실장 김창선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계산할 수 없다.<sup>19)</sup> 셋째, 장성택 숙청 이전에 장성택이 현지지도 수행 인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정은이 현지지도 수행 인원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활용한 북한 권력엘리트 분석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북한의 권력엘리트를 김정은의 측근 또는 장성택의 측근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처럼 분석 대상을 0 또는 1로 분류할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된 많은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김원홍과 김양건을 장성택과 김정은의 측근으로 동시에 분류하는

19) 『조선일보』, 2013년 12월 1일.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sup>20)</sup> 그러나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활용할 경우 북한 권력엘리트가 어느 정도 김정은과 가까운 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대부분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요 권력기구에 위치한 인물들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IV. 김정은 친화성 지수와 북한 권력구조

### 1.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타당성 검토

〈표 4〉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1회 이상 수행한 202명 중 김정은 친화성이 높은 인원 20명과 낮은 인원 20명을 순서대로 배열한 결과를 보여준다. 김정은 친화성이 높은 인원은 황병서, 한광상, 리영길 순이었고, 낮은 인원은 장성택, 최룡해, 김경희 순이었다. 장성택의 처형, 최룡해의 반복되는 숙청과 복권, 김경희의 피살설<sup>21)</sup>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친화성이 낮은 인원들은 김정은의 관심과 배려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친화성은 현지도도 수행 빈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up>20)</sup>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 23)과 각주 24)를 참고할 것.

<sup>21)</sup> 『조선일보』, 2016년 1월 1일.

〈표 4〉 개인별 김정은 친화성 지수

구분	성명	지수(상위)	주요 직책	성명	지수(하위)	주요 직책
1	황병서	10.307	당 조직지도부 /총정치국장	장성택	-7.212	당 행정부장
2	한광상	4.509	당 재정경리부장	최룡해	-5.918	총정치국장
3	리영길	3.377	총참모장	김경희	-3.245	당 경공업부장 /비서국 비서
4	서홍찬	3.237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기남	-3.043	선전선동부장
5	박영식	2.949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 부국장	문경덕	-2.777	평양 당책임비서
6	리병철	2.816	공군사령관	김영춘	-2.713	인민무력부장 /국방위 부위원장
7	조용원	2.635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2.696	당 군수담당 비서
8	김여정	2.246	당 부부장/인척	현철해	-2.552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9	리재일	2.109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	-2.365	국가안전보위부장
10	변인선	1.984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태성	-2.196	평양 책임비서
11	오수용	1.943	함북 당책임비서	김영일	-2.115	당 국제부장
12	오일정	1.330	노동적위대 사령관	김정각	-1.918	김일성 군사종합대 총장
13	오금철	1.320	부참모장	김영남	-1.882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14	럼철성	0.990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격식	-1.864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15	김정관	0.987	인민무력부 부부장	최태복	-1.832	정치국 위원
16	장동운	0.931	항공사령부 정치위원	최영림	-1.796	정치국 상무위원
17	조경철	0.873	보위사령관	김평해	-1.766	당 간부부장
18	홍영철	0.578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리영호	-1.659	총참모장
19	조춘룡	0.577	제2경제위원장	주규창	-1.543	기계공업부장
20	리일환	0.564	평양 당책임비서	강석주	-1.434	정치국 위원 /내각 부총리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북한의 현실에 부합한다면 북한 권력엘리트의 신상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은 2015년 5월 한광상이 숙청되었고, 2016년 2월 리영길이가 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한광상은 김정은 친화성 지수 2위에 해당하고, 리영길이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 3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은 인물이 숙청되었다면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북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김정은의 측근이라면 무조건 숙청되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하는 한계이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오를 범할 경우 김정은에 의해 숙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통해 북한 권력엘리트의 신상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사례로 제시된 한광상은 2015년 11월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건재를 과시하였고, 리영길 역시 2016년 5월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복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첫째,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안정적인 후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장성택의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시기(2010-2011)에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원은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이 시기에 현지도도를 자주 수행한 인원은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일의 현지도도 수행 빈도와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피어슨 상관계수=-.239,  $p=.000$ ).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당 행정부와 장성택과 함께 국가체육지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을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한다.<sup>22)</sup> 만약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노동당 행정부 및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관련 인물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다른 인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 202명 중 기존 연구에서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원은 30명이었다.<sup>23)</sup> 이들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평균 -1.19로 다른 인원의 평균 .20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p=.000$ ). 이와 반대로 김정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원은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 11월 장성택의 처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삼지연 현지지도를 수행한 8명은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sup>24)</sup> 이들의 김정은 친화성은 평균 1.11로 다른 인원의 평균 -.04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23$ ).

마지막으로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중복으로 보직되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정은 집권기에 다수의 권력기관에서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의 경우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등 5개 권력기관에서 3개 이상의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의 김정은 친화성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평균은 2.826으로 다른 인원의 평균 -.04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2) 『연합뉴스』, 2013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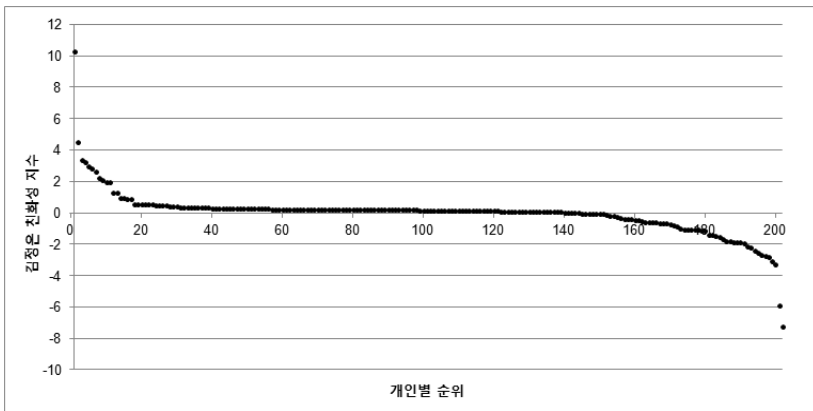
23) 본고에서 분석한 장성택 측근 3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곽범기, 김기남, 김승두, 김양건, 김영일, 김용진, 김원홍, 김창섭, 김평해, 로두철, 로성실, 리명수, 리영수, 리용하, 리종무, 문경덕, 박도춘, 박명철, 박봉주, 안정수, 오금철, 우동측, 장병규, 장성택, 장수길, 전용남, 주규창, 최룡해, 최부일, 최태복.

24) 김원홍, 김양건, 한광상,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홍영철, 마원춘. 『중앙일보』, 2015년 1월 26일.

## 2.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활용한 북한 권력엘리트 분석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북한의 권력엘리트 개인의 신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그림 3〉 개인별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분포



첫째, 기존 연구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측근 여부를 이항변수(0 또는 1)로 측정했다면,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가까운 정도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여 개인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김정은 친화성이 가장 높은 인원(1)부터 가장 낮은 인원(202)까지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이 북한 권력구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매우 크거나 작은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1보다 큰 인원은 13명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고, -1보다 작은 인원

도 29명으로 전체의 14.4%에 그쳤다. 반면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낮은 인원(-1~1)은 160명으로 전체의 79.2%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성택 측근의 규모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김정은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장성택을 처형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북한 권력엘리트는 김정은 친화성이 매우 높은 집단과 김정은 친화성이 매우 낮은 집단으로 양분되는 분포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그림 3>의 분석 결과는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이전에 이미 공고한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장성택의 소수 핵심 측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력엘리트를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5>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은 인원과 낮은 인원의 주요 직책 비교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최룡해	총정치국장(12.4~14.4)	황병서	총정치국장(14.4)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10.5-현재)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04.5)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97.7-현재)	김여정	당 부부장
김영춘	총참모장(95.10~07.4) 인민무력부장(09.2~12.4)	리영길	총참모장(13.8)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12.4~13.5) 총정치국 행정/조직부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15.7)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13.11)

둘째, 김정은 친화성이 높은 인원과 낮은 인원의 주요 직책을 비교할 수 있다. <표 5>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김정은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책이 김정은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책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성택 처형 이전과 비교할 때 장성택 처형 이후 현 지지도를 수행하는 인원이 변화했지만, 이들이 가진 직책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현지지도의 장소와 내용은 최고지도자

의 정책 지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낮은 인원과 높은 인원이 동일한 직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시시각각 변하는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책에 보직된 최고지도자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의 주요 권력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구성원들의 김정은 친화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표 6>에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은 다른 인원에 비해 김정은 친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비서는 다른 인원에 비해 김정은 친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내각에 포함된 인원들의 김정은 친화성은 다른 인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북한과 같이 최고 지도자 개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재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선호하는 인물이 집중된 기관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정은 집권기 북한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국방위원회)를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실시된 7차 당대회 이후 변화된 북한 권력구조를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국에서는 14명의 위원 중 4명(강석주, 김양건, 리용무, 박도춘)이 탈락하고, 15명이 새롭게 충원되었다.<sup>25)</sup> 정치국에서 탈락한 4명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평균 -1.564)는 새롭게 충원된 15명(평균

<sup>25)</sup> 1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능오, 김수길, 김영철, 김평해, 노광철, 로두철, 리만전, 리명수, 리병철, 리수용, 리영길, 박영식, 박태성, 조연준, 최부일.

〈표 6〉 북한 주요 권력기구별 김정은 친화성 지수

구분		정치국	비서국 (정무국)	당중앙군사 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7차 당대회 이전 (15.11)	총 인원	17	9	20	12	50
	현지지도 수행인원	14	9	16	8	13
	수행인원 비율	82.3%	100%	80%	66.7%	26%
	평균 (p-value)	-.840 (.020)	-1,907 (.000)	1,244 (.000)	1,114 (.022)	.087 (.818)
7차 당대회 이후 (16.06)	총 인원	27	9	11	8	65
	현지지도 수행인원	25	9	11	8	12
	수행인원 비율	92.3%	100%	100%	100%	18.5%
	평균 (p-value)	-.156 (.559)	-1,330 (.003)	1,206 (.003)	1,114 (.022)	.063 (.873)

0.238)에 비해 크게 낮았다. 둘째, 정무국이 신설되면서 비서국 비서 9명 중 박도춘, 김양건, 강석주 등 3명이 리수용, 김영철, 리만건으로 교체되었다. 정무국에서 탈락한 3명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평균 -1.823) 역시 새롭게 합류한 3명(평균 -.01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처럼 정치국과 정무국에서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낮은 인물이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높은 인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김정은 중심의 지배체제가 공고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는 향후 정무국과 노동당 부서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한 언론의 분석과 상반된다.<sup>26)</sup> 이러한 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평균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군 중심의 북한 권력구조가 변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6) 『중앙일보』, 2016년 5월 10일.



## V. 결론 및 방법론적 함의

북한의 권력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 동향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제시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개인별로 비교할 수 있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북한 권력구조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성택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화성이 매우 낮은 인물, 즉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김정은은 군 중심의 기존 권력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군 관련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들이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낮은 인물에서 높은 인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 위원들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고의 의의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국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의 접근이 엄격하게 차단될수록 내부 사정에 밝은 정보원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특정 개인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구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같은 연구자에 의한 북한 권력구조에 대

한 평가와 분석이 시기에 따라 서로 달라지고, 특정 시기에 서로 다른 연구자가 북한 권력구조에 대한 엇갈린 분석을 내놓은 이유 역시 적절한 연구 방법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소수의 북한 권력엘리트에게 발생한 신상 변화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장성택과 김정은의 영향력이 변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설로 제시하고, 이를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직관, 경험, 가치 등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북한 연구에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은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 및 권력구조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고에서는 4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동향 자료를 김정일 집권기(1994~2010), 과도기(2010~2011), 김정은 집권기(2012~2015)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개발할 경우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고에서는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김정은 친화성 지수는 현지도 동향으로부터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정권의 권력 변화와 관련된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비리나 사고 등으로 현지도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을 분석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기존 연구 방법과 결합되어 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 연령,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김정은 친화성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도출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향후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친화성 지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 수령제의 특성으로 고려할 때,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있는 인물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김정은의 측근 외에 이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성택과 김정은 등 개인의 측근에 대한 분석보다는 당행정부와 조직지도부 등 북한의 주요 권력기구에 속해있는 인물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제3권 10호 (2001), pp. 1~18.
- 김인수·권훈. “김정일의 현지도(1994-2008년) 연결망 분석.” 『통일연구』, 제14권 2호 (2010), pp. 5~30.
- 박영민.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 현지도 패턴 분석: 2000년-2009년까지.” 『동북아연구』, 제25권 1호 (2010), pp. 77~96.
-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pp. 1~27.
- 류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 199~299.
- 서석민. “선군정치 시대의 당-군 관계 연구 : 핵심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제15집 1호 (2007), pp. 216~243.
- 양무진.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pp. 29~54.
- 이근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2003.
- 이교덕.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기청. “계획경제 실패와 현지도.” 『농민문화』, 제111호 (1978), pp. 54~60.
-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권력구도와 파워 엘리트 변동.”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pp. 66~85.
- 장용훈. “김정일 위원장, ‘장의 남자’ 전면배치…후계 준비.” 『통일한국』, 제303호 (2009), pp. 29~31.
-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5년간의 김정일 현지도를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1999), pp. 30~36.
- 홍민. “북한의 현지도와 경제 운영: 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 『정치비평』, 제9권 (2002), pp. 173~201.
- Kim, Insoo and Lee, Min-Yong. “Predictors of Kim Jong-Il’s On-the-spot Guidance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North Korea Review*, Vol. 8, No. 1 (Spring 2012), pp. 93~104.

Kim, Insoo and Lee, Min-Yong. "Has the Military superseded the party under Kim Jong-il's rul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5, No. 2 (Fall/Winter 2011), pp. 39-54.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publicEvent.do>.

Development of Kim Jong-un Affinity Index of North Korean  
Power Elite  
: With Focus on Change in Field Inspection Members after  
Execution of Jang Sung-taek

Kim, Insoo (Korea Military Academ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quantitative index, which can be used to measur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North Korean power elites. This study suggests Kim Jong-un Affinity Index(KAI) on the basis of factor analysis on 202 North Korean elites who have appeared more than once in Kim Jong-un's field inspection (2012-2015). KAI indicates whe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ung-taek one North Korean power elite is likely to accompany Kim Jong-un.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North Korean leader let his proteges to accompany field inspection, those who have a higher KAI can be assumed to have a close relation with Kim Jong-un. Major findings go as follows. First, results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North Korean power elite can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who is likely to accompany field inspection before the execution of Jang and the second group who is likely to do so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econd, those who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Ja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KAI, while those who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Ki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KAI.

This study then used KAI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im Jong-un regime and found that Kim Jong-un regime is relatively stable for three reasons. First, the number of North Korean power elites who have relatively higher or lower KIA is small. Contrary to expectation from existing literature, this is to say that Jang Sung-taek did not has a large group of proteges. Seco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positions that North Korean power elites with relatively lower KAI and North Korean power elites with relatively lower KAI assumed. Results indicates that the positions playing a critical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 have not changed. Finally, comparing KAI by North Korea's party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 of the KAI. Therefore, it is not difficult to conclude that North Korean power structure centering around the military is maintained or strengthened.

Key words: Kim Jong-un, Jang Sung-taek, Field inspection, Affinity index.

김인수 (Kim, Insoo)

미국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육군사관학교 사회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학 이론을 남북관계 및 북한에 적용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된 논문으로는 "Is Internet an Omnipotent Swords: The Use of Internet and the Spread of Rumors to South Korean Combatants," "북한의 사회적 유통망과 지역별 식량난,"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등이 있다.